

지역 소식통

고창군보건소, 치매전문 예방 관리 프로그램 운영

고창군치매안심센터가 센터에 등록된 각 유형별(정상군, 고위험군, 경증치매) 이용자를 대상으로 치매전문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올해 프로그램으로는 △경증치매환자 '기억새김' 컴퓨터 △치매교육원 '꽃보다 청춘' 인지강화교실 △정상 어르신 '기억꽃 활짝' 치매예방교실이다.

센터에선 사회복지와 외부강사 6명이 경증치매환자 10명을 대상으로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후 3시간씩 돌봄과 인지재활 활동을 제공한다. 매주 목요일에는 일상에서 벗어나 정서적 환기를 위해 치유농장에 방문해 힘을 제공한다.

또 보건소·진료소 지역 담당자와 외부강사 31명이 35개소 경로당 치매예방교실에 투입돼 369명 어르신의 인지증진을 위해 지난 1월부터 매회 새로운 수업을 진행중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농기센터, 생활개선회 농기계·농작업 안전교육

정읍시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는 농촌 여성 학습단체인 생활개선회 회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13일부터 3월 16일까지 생활 기술 과제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과제교육은 음면동 특성에 맞는 과제교육과 기후변화 대응 영농 교육 등을 통해 생활개선회 조직 활성화를 도모하고 여성농업인의 활동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피부암을 유발하는 자외선을 차단하고 피부를 보호하는 선크림 만들기, 코로나 등 병원균 차단과 환경 보호를 위한 천연세제·천연비누 만들기, 심신 안정과 치유를 위해 공기정화 식물을 심는 원예치료체험 등 지역별 회원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이 진행됐다.

또한 영농철을 대비해 농기계 임대 절차 안내와 경운기, 트랙터 등 농기계 운전 시 주의사항, 예취 작업 시 안전사고 대비요령 등 농기계·농작업 안전교육도 진행됐다. /정읍=김대환기자

중증장애인 이동 편의 높인다

정읍시, 대상 차량 가사·도우미 지원사업 추진

정읍시가 지역 내 홀몸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힘쓰고 있다. 시는 홀로 사는 중증장애인의 이동 편의성 증진을 위해 전라북도 최초로 '독거 중증장애인 이동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독거 중증장애인 이동 지원사업'은 보호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차량 기사와 도우미가 현장을 방문해 차량 이용을 도와주는 사업이다.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추진된다. 사업은 전북지체장애연합회 정읍시

지회가 정읍시로부터 총사업비 10억 9천만 원을 지원받아 위탁 운영한다. 중증장애인 이동 지원사업에는 지역 내 교통약자 910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일일 평균 차량 1대당 12명이 이용하고 있다. 차량은 총 18대가 운영된다. 차량에는 휠체어가 탑승할 수 있도록 휠체어 리프트가 마련돼 있으며,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 차량 내부에 고정 벨트와 안전바 등이 설치돼 있다. 차량 이용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은 전북지체장애연합회 정읍시지회(☎536-9870)로 문의하면 된다. 이동지원 차량 이용자는 "혼자사는 이동이 어려웠는데 직접 가정을 방문



해 외출 준비를 도와주고 탑승에서 하차까지 이동 보조를 해주셔서 매우 편리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중증장애인들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건강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장애인들에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농업재해 대비 피해 최소화 주력

정읍시, 농업재해 담당 공무원 직무역량 강화교육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급변하는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농업시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0일 농업재해 담당 공무원 80여 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기술센터에 따르면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해 농업 현장에서 병해와 가뭄,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피해조사와 빠른 복구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이날 교육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 유인호 연구관이 강사로 나섰다. 유인호 강사는 강풍과 폭설 등 자연재해 대비를 강화하기 위해 최근 개정된 내재해형 설계기준과 시설규격에 관한 내용을 설명했다. 또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상 발생

으로 원예 특작 시설의 피해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며 농가의 경제적 손실이 늘어남에 따라 담당자의 중점 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는 시간도 가졌다.

이와 함께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NDMS) 운영, 재해조사 관련 준수사항, 복구계획 전반에 관한 교육을 진행해 교육생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업인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해대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며 "농가에서도 피해 발생에 대비해 시설물 관리 보수 등 사전 예방 활동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농업기술센터는 4차산업혁명으로 변모하는 농업의 환경 속에서 변화와 혁신을 통한 공직자들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시가별 중점 업무담당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미래교육 기반구축 위한 업무협약식 체결

부안교육지원청-전북대 빅데이터 혁신공유대학 사업단, 디지털 신기술 교육 접목

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장기선)과 전북대학교(사업단장 안정용)빅데이터 혁신공유대학 사업단이 지난 15일 부안교육지원청 2층 회의실에서 부안 지역의 학생들에게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신기술 교육에 접목하기 위한 일련으로 업무협약 체결을 했다.

이날 협약으로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부안 지역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교육을 함께하기로 했다. 특히 학생들에게 빅데이터 관련 수업을 비롯한 다양한 디지털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생 현장실습 및 캠프 등을 개최하며, 기술교류 및 자문을 통한 관·학 발전을 도모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장기선 교육장은 "학생들은 현시대



에 생성되는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구분하고 유의미한 데이터를 찾아내어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는 계기

가 될 것"이라며 "지역 대학과 함께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북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지난 15일, 16일 양일 동안 2023년 로컬푸드직매장 출하농가 교육을 권역별로 4회로 나누어 실시했다고 밝혔다.

부안군, 2023년 로컬푸드 출하농가 교육 실시

전북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지난 15일, 16일 양일 동안 2023년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농가 교육을 권역별로 4회로 나누어 실시했다고 밝혔다.

부안 로컬푸드직매장에 농산물을 출하하기 위해서는 매년 1회의 로컬푸드 출하 교육 이수 필수이며, 출하를 희망하고 지역 내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이번 교육에서는 기존 로컬푸드 출하 농가 및 신규 농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부안군 인증 농산물 기준, 안전성 분석 및 농가별 출하계획서 작성, 포장 방법 등의 실질적인 교육을 실시했다. 이는 출하 교육뿐만 아니라 로컬푸드 출하농가의 애로사항과 농업 노하우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장이 됐다.

장경준 농업정책과장은 "주기적인 출하농가 교육을 통해 신선하고 안전한 지역농산물 기획생산과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를 기대한다"며 "소비자는 지역의 신선한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하고, 출하농가는 복잡한 유통과정 없이 농가소득을 창출하여 로컬푸드 직거래 활성화를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계자에 따르면, 부안 로컬푸드 직매장은 2021년 5월 개장 후 현재까지 매출 40억, 이용객 13만명 및 가입 회원수 3,800명을 돌파했으며, 서해안 고속도로 행복장터 운영, 격포권 로컬푸드 직매장 추가 개설, 학교급식·공공급식 등을 통해 연매출 100억 원 달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기자

고창군, 민·관합동 해양국토대청결 행사

전북 고창 앞바다의 해양쓰레기 수거에 고창군과 유관기관, 지역주민이 두 팔 걷고 나섰다.

16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고창군 상하면 구시포항에서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방문의 해를 맞아 유관기관과 어업인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해양국토 대청결운동이 펼쳐졌다.

구시포항 해상에 전라북도 부안해경, 어촌어항공단의 관공선과 관내 어선이 함께 선박의 정비를 이용해 해상

에 버려진 페어링·페어구 등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했다. 또 고창대대, 고창수협, 어촌계와 어업인단체 등 100여명이 함께 정화활동을 실시해 해양쓰레기 약 20톤가량을 수거했다. 해양쓰레기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단순히 악취와 미관상의 문제만은 아니다. 근처에서 서식하고 있는 해양생물들의 생존 자체에 해를 끼쳐 해양생태계를 붕괴시킨다. 또 바다에서 양식 등 어업활동을 하



는 어민들에게 해양쓰레기로 인한 수산자원의 감소는 당장 생계의 위협으로 작용한다. 고창군도 해양쓰레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청정만 고창바다 만들기ye 안간힘을 쓰고 있다. /고창=김영식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